

베트남전력공사(EVN)의 그룹 재편성

1.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과 전력사업

베트남에서는 최근 전력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국영기업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영기업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력, 통신, 원유,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활동을 시행하여 왔다. 베트남에서는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국영기업의 경영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생산이 정체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영기업을 개혁으로 이끌어 내는 발단이 된 것이 1986년의 도이모이(Doi Moi : 쇄신) 정책이다. 도이모이 정책이 발표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시도되면서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정부 주관기관과 국영기업의 밀착관계도 시정하고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베트남의 전력사업 형태도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발전에서 송전, 배전까지 일관하여 전력공급을 실시하고 있는 베트남전력공사(EVN)의 조직개혁이 단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VN의 그룹 재편(再編)의 개요를 위시하여 베트남의 국영기업이 어떠한 변천을 하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2. 전력사업에서의 사업형태의 변천과 EVN의 그룹 재편

가. 정부 주관기관에 의한 국영기업의 직접관리

1994년까지의 전력사업 형태는 정부 주관기관이 국

영기업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에서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달성한 1954년까지 북부의 팡닌 주와 하노이 시에 소규모의 발전소와 송전선이 존재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76년에 남북이 통일된 것을 계기로 전력사업이 재편되어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지역에 각각 설립된 전력공사 등 각 기업을 에너지부(MOE : Ministry of Energy)이 1994년까지 직접 관할하였다. 그 결과 전력공사와 전력설비조사·설계공사 등이 에너지부 밑에 횡적으로 위치하여 관리되었다. 또한 전력수요 예측과 전원개발 계획 등에 관한 기관으로서 MOE내에 에너지 연구소(IE : Institute of Energy)가 설치되었다. 한편, 석탄공사와 광산연구소는 중공업부(Ministry of Heavy Industry)의 관할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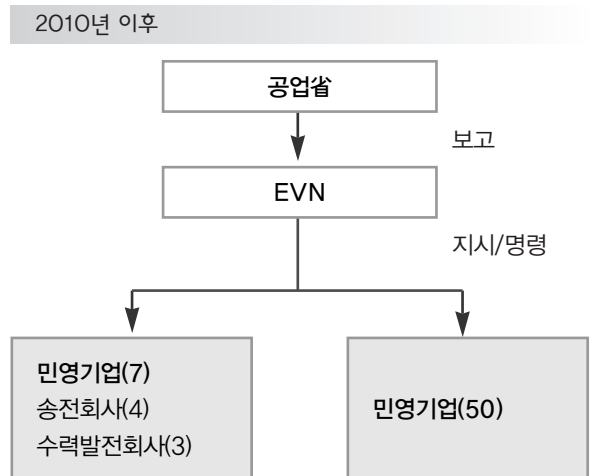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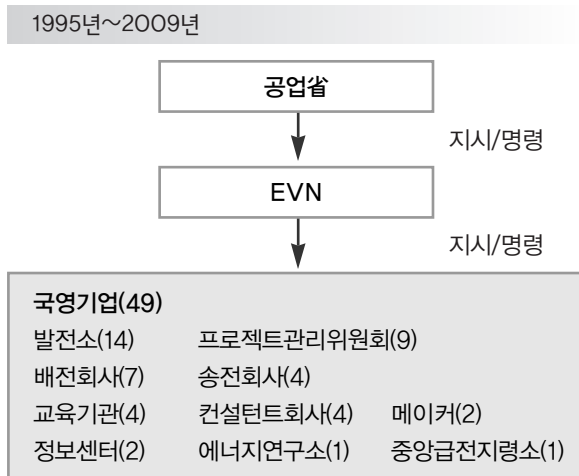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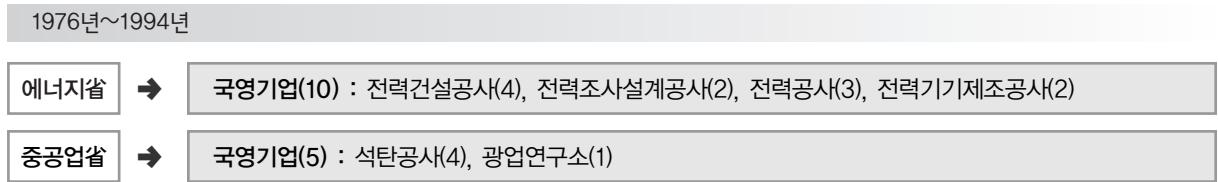
나. 정부 주관기관에 의한 EVN을 통한 국영기업의 간접관리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공업부는 EVN을 거쳐 국영기업을 간접적으로 통괄하여 왔다. 정부는 1994년에 EVN을 설립하고 1995년에 중공업부와 에너지부 등 3개의 경제관련 성청(省廳)을 공업부(MOI : Ministry of industry)에 통합하여 EVN을 공업부의 관할 하에 둔다. 이와 동시에 그때까지 베트남 전 지역의 전력사업을 보급시켜 온 배전회사 등을 EVN의 산하에 두었다. 이와 같은 재편에 의하여 MOI는 EVN을 통하여 전력분야의 국영기업을 통괄하는 체제를 형성하였다.

다. EVN의 지주회사화(特株會社化)와 그룹 재편

2003년에 수상령(首相令) 219호가 공포되어 EVN

〈그림〉 전력사업의 소유관계의 변천



(주) 괄호내의 수치는 기업체 수를 나타냄
 (출처) 일본해외전력조사 '해외제국의 전기사업 제2편' 외

의 그룹 재편과 산하 국영기업의 개혁이 승인되었다. EVN은 2009년까지 산하 국영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민영화하여 그룹 재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계획에 의하면 국영기업으로서 존속하는 것은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지역에 각기 위치하고 있는 수력발전회사와 송전회사이다. EVN은 4개의 송전회사를 하나로 합병하여 송전사업을 10년간 독점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이들 국영기업 이외의 기업에는 주식 상장 등에 의하여 민간자본이 유입된다. EVN에 의하면 장래의 그룹 구조는 EVN이 그룹의 상층에 위치하고 민영기업 50개사와 국영기업 7개사를 소유하는 형태가 된다.

3. 남은 과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전력사업은 정부 주관기관이 상부에 위치하고 그 밑에 국영기업이 펼쳐 있는 형태를 기초로 하였다. 이러한 사업 형태는 EVN의 설립과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라고 하는 개혁이 더해짐으로써 「주관기관 → EVN → 민영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재편성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EVN의 경영은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당(黨) 기관이나 정부기관에 관계가 있는 인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 때문에 EVN의 개혁에는 전문 경영지식을 가진 인재의 등용 등 남아있는 과제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출처 : 일본전기협회 「電氣協會報」